

# 스페이스X IPO 기대감... 우주·반도체 ETF '카피캣 경쟁'

(모방)

운용사들, 유사 ETF 상품 잇단 출시  
美 우주항공·반도체, 자금 상위권  
스페이스X 기업가치 최대 2조달러



ChatGPT로 생성한 ETF 관련 이미지.

“모든 회사가 상장지수펀드(ETF)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밤샘 작업하며 상품을 개발해요. 그런데 치열하게 고민해서 상품을 내놓아도 잠깐만 좋지 경쟁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모방 출시하더라고요. 규모도 확 키워서 상장시키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한 자산운용사 임원)

ETF 시장에서 다른 운용사가 애써서 내놓은 것을 따라내는 이른바 '카피캣(모방) 상품'이 늘고 있다. 미국 우주항공과 반도체 관련 ETF가 그 중심에 있다.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기대감과 반도체 투자 수요가 맞물려 있다.

26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우주항공 관련 상품과 반도체 ETF가 자금유입 2위부터 5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TIGER 미국우주테크에 2303억원이 몰리며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유입됐

고, 다음으로 HANARO FnK-반도체(2160억원), SOL AI반도체TOP2플러스(1907억원),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1715억원) 등이다.

우주 테마는 ETF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금 이동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스페이스X의 IPO 관련 박이벤트가 존재하는 만큼, 호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

EC)에 오는 6월 상장을 목표로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IPO 절차에 돌입했다. 목표 기업가치는 최대 2조달러(약 2600조원)로 상장 성공할 시 글로벌 시가총액 6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스페이스X의 상장은 역대급 규모의 자금조달과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스페이스X 상장을 통해 우주산업의 기준점이 생성되며 전반적으로 리레이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걸음을 맞추려는 자산운용사들의 상품 속도전도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삼성자산운용이 'KODEX 미국우주항공'을 먼저 출시했고, 지난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각각 'TIGER 미국우주테크',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를 상장했다. 최근에는 신한자산운용이 'SOL 미국우주항공TOP10ETF'를 출시하며 경쟁에 참전했으며, KB자산운용도 관련 상품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품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운용사별 차별점은 약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ETF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 운용사에서 좀 괜찮은 상품이 나오면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 쏟아진다”며 “우주항공도 장기적으로 봐야할 테마지만 당장은 스페이스X라는 단기 호재를 보고 사실상 같은 상품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기 테마인 반도체 ETF 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최대 25%씩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국고채 등 국내 우량 채권으로 구성한다. 채

권 비중이 50%를 넘어설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10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는 강점이 생긴다.

가장 먼저 출시했던 곳은 KB자산운용이다.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은 지난 2월 26일 상장 이후 36영업일 만에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채권혼합형 ETF 사상 최단 기록이다. 이후 삼성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이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주목됐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ETF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이르면 내달 22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

## 반도체 변동성에 서학개미, 상·하 동시 베팅

## 법적 보호 없는 매매예약금 피해 주의보

### 해외주식 Click

순매수 1위, 반도체 3배 인버스 ETF  
단기 고점 조정 대비 헤지 수요 확대

미국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서학개미) 자금이 지난달에 비해 커진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변동성 베팅과 개별 종목 이벤트를 겨냥한 매수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한 단기 조정 가능성까지 고려한 '양방향 투자'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는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3배 인버스 ETF인 SOXS(DIREXION SHARESETF TRUST DAILY SEMICONDUCTOR BEAR 3X SHS)로 집계됐다. 순매수 규모는 약 8086만달러에 달한다. 반도체 업황 기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단기 고점 부담에 대비한 헤지 수요가 동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 /ChatGPT로 만든 이미지

에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QQQ ETF와 S&P500 ETF(SPY) 등 지수형 상품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메모리 관련 테마 ETF인 라운드힐 메모리 ETF, 반도체 기업 인텔과 마벨, 클라우드·데이터베이스기업 오라클 등도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되며 AI 및 반도체 중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됐다.

특히 상승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가 동시에 상위권에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나스닥 상승 흐름을 추종하는 상품과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함께 매수되며, 투자자들이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목별로는 인텔의 반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24% 급등하며 8분기 만에 매출 증가로 전환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금감원 Q&A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포함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대차계약과 함께 '매매예약금' 납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예약금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전제로 별도로 납부하는 금전으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부 홍보에서는 이를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매예약금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한 금전으로 '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

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금은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이면 계약 형태인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홍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방식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합쳐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니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 문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정윤 기자

## 하나운용, 'K반도체 ETF' 550억 흥행

상장 6일만... 총 236억 누적 순매수

하나자산운용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1Q K반도체TOP2+' 및 '1Q K반도체TOP2채권혼합50'의 총 순자산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22일 기준, 해당 ETF 2종의 총 순자산은 5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4월 14일 상장 이후 6영업일 만이다. 상장 이후 개인고객들은 반도체 ETF 2종에 대하여 총

236억원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다.

'1Q K반도체TOP2+'는 'NICE K반도체 TOP2 MAX+'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약 27.5%씩 편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기업의 합산 비중은 약 55%이며, 나머지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 8개가 포함된다. 일반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IRP) 모두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위험자산 한도(70%) 내에서 편입이 가능하다. 총보수

는 연 0.20%다.

'1Q K반도체TOP2채권혼합50'은 'KEDI K반도체 TOP2 채권혼합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며, 삼성전자 약 25%, SK하이닉스 약 25%, 단기국고채·통안채 약 50%로 구성된 2세대 채권혼합형 ETF다. 퇴직연금계좌(DC/IRP)에 100% 편입이 가능하며, 안전자산 편입 한도(30%) 내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발표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허정윤 기자

## 코스콤, 임직원 배식 봉사로 온기 나뉜

1본부 1봉사 캠페인... 후원금 전달

코스콤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코스콤이 올해 추진 중인 '1본부 1봉사활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스콤은 매달 본부별로 릴레이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공헌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코스콤 경영지원본부 임직원 16명과 상생협력팀 3명 등 총



코스콤 임직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1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내 취약계층 35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 지원과 설거지 등 급식소 운영을 도왔다. /신하은 기자